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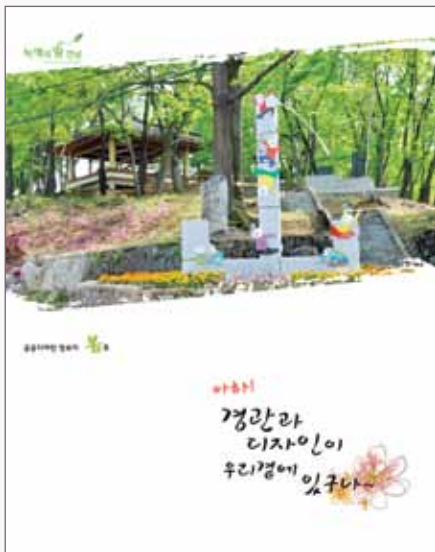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정보지 봄호

아하!

경관과
디자인이

우리곁에
있구나~





표지이야기

표지의 사진은 화순군 성안마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설치한 이호동 작가의 ‘남산에 놀다’라는 작품이다. 남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추억을 재미있는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하여, 남산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넘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작품이다.

화순군 성안마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갖추었다.

C O N T E N T S

04 **경관과 디자인 알아보기** 2013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방향

08 **디자인 해외 견문** 디자인의 도시, 동유럽을 가다

10 **좋은경관만들기** 만화로 보는 좋은간판만들기 전략

12 **경관 위원회**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공디자인 위원회 순천시 가족여가 캠핑장 안내사인

14 **중앙부처 기고글** 매력적인 경관이 곧 도시의 경쟁력

16 **이달의 시군** 해남군

22 **공공디자인 뉴스** 중앙부처 디자인 소식
전남 디자인 소식
시군 디자인 소식
타시도 디자인 소식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전통이 잘 묻어나는 공공디자인

산과 강이 그림처럼 펼쳐진 들녘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주변의 모습이 『전남다운 디자인』의 자산으로 손꼽히는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전통이 잘 묻어나는 공공디자인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반시설 등 공공부분의 계획 과정에서부터 경관관리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둘째, 디자인을 공공재로서 생각하는 철학을 토대로 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전남다운 경관 디자인 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시·군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디자인 모범사례로 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전남”



▲ 이승욱 관광문화국장



▲ 장흥군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

각종 개발로부터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 전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경관협의를 이행토록 하는 사전경관협의제를 전국 지자체로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공직자들로 구성된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운영과 경관개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경관제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수경관마을 조성사업, 좋은경관 만들기 개선사업 등을 통해 경관자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디자인 전남”

또한 우리 도에서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제품에 대한 ‘녹색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과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디자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각종 디자인을 접목한 QR 코드를 자체인력으로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고 각 실과소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행정분야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찾기쉬운 옥외광고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법·제도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 간판 개선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지역 및 신도시, 관광지 등 도내 8개 시·군 29개소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광고업 종사자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전 및 간판디자인학교를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성군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활동



▲ 고흥군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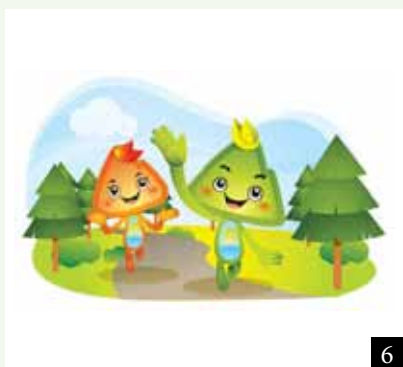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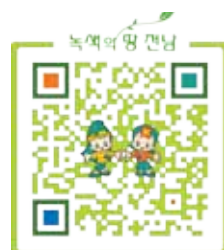


▲ 순천시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

“사진으로 보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업무”



1. 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워크숍
2.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3. 행정선전용 고정선전탑
4.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5. 공공디자인과에서 자체개발한 QR코드 (전라남도(좌)와 공공디자인과(우))
6. 산림자원 연구소 개릭터 디자인 개발
7. 전라남도 고로쇠 브랜드 및 용기 개발
8.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위원회



“전남의 경관·디자인·광고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공공디자인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는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과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 건강을 중요시 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과내 ‘오손도손 통통’이라는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오손도손 통통’은 매월 전직원이 업무 관련 서적을 읽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요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된다. 또한 회식 대신 등산, 야구 관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의 단합을 결속하여 바쁜 업무중에 놓치기 쉬운 건강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 업무효율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디자인의 도시, 동유럽을 가다.

글·사진 : 임 형 석 주무관



지난 2012년 10월, 전남의 간판과 디자인,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 시·군 공직자, 옥외광고업 관련자 등이 동유럽 5개국을 벤치마킹하였다. 동유럽의 철제간판이 만들어낸 특화 거리,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등을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전남도만의 디자인이 드러난 간판설치 및 경관관리를 연출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간판이 만들어낸 도시경관과 관광문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유명하다, 이곳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술로까지 평가받는 간판덕분이다. 문맹이 많았던 중세시대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 알리기 위해 모형을 곁들여 제작된 철제간판들은 현재,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새로이 들어서는 가게의 경우도 이러한 양식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고 있어 연간 수백만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는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는 최근의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LED를 이용한 획일화된 간판개선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각 시군의 경관이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의 색채, 크기, 위치, 수량 등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

헝가리와 체코, 야간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공산이테올로기가 무너지는 동유럽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헝가리와 체코. 그 중에서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흐르는 다뉴브강과 체코의 블타발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하성은 야간경관을 적극적으로 계획, 관리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우리도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13.2월)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광고조명,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 용도지역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통해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 읍면지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 교량 등의 경우 야간경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적극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경관축을 통한 도시경관 연출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도시경관이 과거부터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높이,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제한선 및 간판의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경관을 주요 소득자원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는 이러한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경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 경관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남의 우수경관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경관자원의 DB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경관, 해안경관, 산림경관 등 지역특색을 살리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간판디자인 학교



▲ 체코 프라하성 야경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 체코 프라하의 트위스트 빌딩



▲ 오스트리아 찰츠감마트 경관



▲체코 프라하시 12구역청을 방문한 벤치마킹단

만화로 보는 좋은간판 만들기 전략



글·그림 : 윤 창 숙 주무관



간판개선 사업·정비 사례



▲ 개선 전-건물을 뒤덮은 옥외광고물(여수시 쌍봉로)



▲ 개선 후-깔끔하고 건물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개선 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건물(무안군 남악신도시)



▲ 개선 후-대형 현수막 철거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경관 위원회 심의

【심의 전】



【심의 후】



【주요 심의내용】

- 건축물의 배치 계획, 입면 및 조형적 이미지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구성
- 연못 2개소는 과다하며 형태 및 위치 재검토
- 건축물 외관의 이미지와 조형미의 구성에서 상호 분리된 건축물이 연계되고 어울리도록 변경

순천시 국민여가 캠핑장 안내사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심의 전】



【심의 후】



【주요 심의내용】

- 화려한 색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사용
- 과도한 디자인을 단순화하여 거부감을 없애고, 유지 및 보수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
- 각 사인물 간의 C.I.P(통합이미지) 계획을 수립 후 이미지가 서로 연계되도록 디자인

매력적인 도시공간이 곧, 도시의 경쟁력



글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인재 사무관

개성있고 매력적인 공간만들기

최근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경관개선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고 행복을 주는 차원을 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불러 모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도시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개성없이 획일적인 모습에, 주위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냥갑 아파트가 난무해 있는 형편이다. 수천년 역사를 가진 도시와 불과 백년이 채 안된 도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가 담긴 경관이 나올 법도 하지만, 선진국의 도시들과 달리 문화적 감동을 주는 공간이나 건축물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현대인은 문화적 감동을 원한다.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감흥을 넣고 싶어한다. 문화적 감수성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가 담긴 공간에 가는 것이다. 얼마 전 갔었던 담양 소쇄원의 고요한 풍경은 한동안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남겨주었다.

특색있고, 문화가 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별 장기적인 안목의 미래 이미지를 그리고, 그에 따라 경관계획과 세부적인 지역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도시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유럽 선진국의 도시처럼 고풍스러운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성있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노력은 필요하다.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우리는 그동안 양적인 관점에서 국토를 관리하고, 증가하는 수요 대처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국토의 질적 관리에 신경 쓰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야한다.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랜드마크 조성을 지원하고, 한옥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한옥건축 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09 ~'12년 25개소 109억원, '13년 8개소 53억원 지원

그 밖에 지자체의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해 SOC·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구 30만명) 지자체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관법을 개정하고 있다. 경관에 대한 관리는 결국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아이টে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경관개선 노력을 돕고자 한다.

매력적인 도시, 모두의 노력이 필요

도시경관을 가꾸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특색이 담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크게는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미래모습을 그리는 단계부터 지자체 단위의 경관계획과 마을별 경관협정에 이르기까지, 경관 관리의 모든 단계를 국민과 함께할 때 그 계획은 의미를 갖고 강한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누구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이자, 보편적 주거복지의 한 축이다. 도시 경관을 가꾸는 일은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을 위한 행복한 삶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도시의 모습을 가꾸어나가야 할 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주민들과 뜻을 맞추어 살고싶은 해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달의 시군인 해남군은 3년 연속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될 만큼 경관 · 공공디자인 ·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남다르다. 해남군 박철환 군수를 만나 해남군의 경관 · 공공디자인 ·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남군이 이달의 시군으로 처음 선정이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먼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소식지가 개편되어 2013년 첫호로 해남군이 선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 한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노력했던 결실이라 생각하니 매우 뜻 깊고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큰 책임감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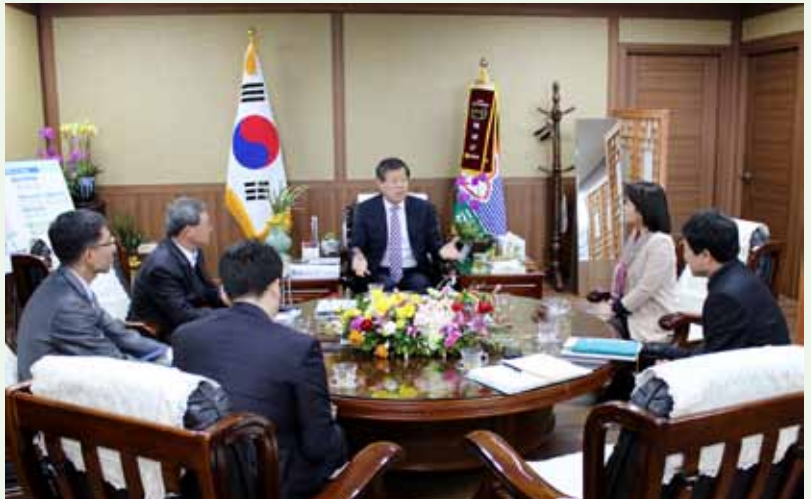
해남군이 경관행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남군의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실이 아닐까요, 아직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지만 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해오던 사업, 정책들에서 조금 더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했던 것이 비결 아닌 비결일 것입니다.

해남군의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비전이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경관, 보기 좋은 디자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세련된 것이라도 실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한다면 결코 좋은 경관, 공공디자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 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을 가진 풍요로운 고장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개선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 상생하는 경관을 만들어가고, 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남 군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 자랑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해남에서 어느지역의 경관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해남군의 전 지역이 다 우수한 곳인데요, 그래도 꼽자면 해남하면 떠오르는 땅끝지역과 최근 미로공원이 조성되는 대흥사권을 포함한 두륜산 지역, 우수영과 공룡화석지가 있는 우수영권이 대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해남의 전형적인 시골풍광과 지역주민의 따뜻한 인심도 우리가 가진 우수한 경관자원이 아닐까요

2013년도에 경관·디자인·광고물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13년은 해남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큰 밑그림의 첫걸음을 떼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이 시도하지 않았던 간판개선, 경관·디자인에 대한 시범거리 조성을 목표로 현재 중앙,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의 무분별한 간판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상가가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간판정비를 시범도입하고, 우리군의 규격과 특색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도시에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옷을 입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해남읍을 찾아왔으면 합니다.

해남군 지역개발과를 소개합니다.

해남군에서는 2008년 8월부터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업무를 지역개발과 경관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사업추진 뿐만아니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과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자전거 시책업무 등 해남군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는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관·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4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금강저수지수변공원조성사업,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등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성과, 보여주기만을 위한 경관과 디자인을 추구하기 보다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기본으로 아름다움을 넘어서 상생과 조화로움을 그릴 줄 아는 사회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해남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보존하고 이를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해남의 경관과 디자인, 우리가 책임진다!



부군수 배택휴

경관과 공공디자인은 전문가 적인 측면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땅끝, 우수영,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자연 경관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마을과 시가지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풍요로운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날로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도 경관업무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3년연속 경관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해남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군민과 함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개발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경관개발담당 이재영

경관과 공공디자인은 단어 자체부터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습니다. 또한, 정답이 없는 주관식이라 흥미로운 업무입니다. '도시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 낸 가장 큰 작품이요, 가장 복잡한 발명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 도시경관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아직까지는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타업무에 비교하여 비중이 많이 떨어지지만 점차적으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갈 때면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보람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해남군이 바뀌고 변해갈지 항상 고민하며 오늘도 아자! 아자!



주무관 이명진



600년의 시간과 공존하는 곳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해남군에서 선정한 우수사례인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은 해남읍 연동리 윤선도 유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면적 1천83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자연 채광과 외부조명을 최대한 살린 전통 한옥양식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곳으로 해남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 | 사업명 : 고산 윤선도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 | 위치 :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유적지 내
- | 총사업비 : 100억(국비 50, 도비 7, 군비 43)
- | 사업기간 : 2004 ~ 2012
- | 사업내용 : 유물전시관 신축, 구 전시관 정비, 산책로조성,
담장 등 주변정비 등
- | 사업규모 : 1,830㎡ / 지상1층, 지하 1층 / 3개동



사진으로 보는 유물전시관 경관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과 회랑



▲ 전시관 내에 조성된 공원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뒤편

1991년에 건립된 구 유물전시관은 장소가 협소해 유물을 다 전시할 수 없어, 지난 2004년부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하나로 100억원을 들여 유적지 주변 정비와 함께 전시관을 신축하였으며, 기존 유물 전시관은 그대로 보존하여 해남윤씨 종가의 사대부 문화와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본 건물은 2011년 ‘아름다운 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설계자 김상식/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하였는데, 혼자만 잘난 듯 두드러진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조화로움을 한층 높여준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물의 구성은 각각 사무동과 전시관, 교육관 3개로 나뉘었으며 메인 건물인 전시관은 녹우당 사랑채와 똑같은 ‘ㄷ’자로 지었다. 건물의 배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안마당은 비를 피하기 위해 유리를 덮어 천창(天窓)으로 빛이 쏟아지는 아트리움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빛이 전시실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부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얹어 간접채광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전시실에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의 70%를 확보하게 되어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물이 되었다.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은 외부 자연을 내부 공간으로 불러오는 한편 지상 한옥과 현대적 느낌의 지하 전시공간의 자연스런 매개체로도 사용된다. 지하공간은 완전한 현대건축이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전시실의 특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전통건축과 연결하지 않고, 벽은 막돌쌓기로 마감하였으며, 엘리베이터의 외부 역시 결이 있는 목재 느낌으로 손질해 콘크리트의 질감을 최대한 지양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실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에는 우리도의 2016 세계친환경상품디자인박람회를 비롯하여 2014 부산국제영화제,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2014 대전산림치유국제박람회, 2014 부산비엔날레,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총회 등 7건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 10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하게 된다.

2016 세계친환경상품디자인박람회는 미래산업으로 커져가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안전행정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를 조정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면적을 영업내용의 4분의 1 이내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상간판은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30cm 이내로 돌출해 표시하는 근거 마련하고 ▲지주이용간판 중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철도 주요 경계시설 가림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다.

한편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해 3월부터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옥외광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 전면개정 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간이역 및 유희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희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우리도의 득량면 역전길 ‘추억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충북 증평역 등 간이역 2개소, 강원 영월 운일 분교 등 유희공간 5개소로 총 7개소를 선정하였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1년부터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위해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하여 소규모 간이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그 대상 범위를 넓혀 간이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유희공간을 포함하여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문화기획, 디자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역 및 공간의 잠재력과 지역 주민의 활용가능성, 지역 문화예술단체 연계성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는 간이역 및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개선된 공간 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7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정한 힐링이 있는 곳, 우리의 농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농촌경관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제7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공모 주제는 ‘내 맘속의 힐링 농촌을 느끼다’로 농촌경관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심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농촌 풍경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더불어 사는 귀농·귀촌의 모습 ▲전통이 흐르는 역사문화의 모습 ▲다채로운 농업·농촌체험의 모습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시행마을의 경작물과 어우러진 농촌경관 모습을 촬영할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과 생동감 있는 사진을 통해 숨겨진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거주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된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10월 1일 발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포스터

국토부,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발굴 활발



▲ 목포시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도시만들기’를 위해 지난 3월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 설명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국비신청규모 945억원)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이미 선정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해,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경관·옥외광고· 디자인업무 연찬회

전라남도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관련 업무 연찬회와 경관·옥외광고업무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남의 업무계획 설명과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 등을 가졌다.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4개 시·군의 주요 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향상된 쾌적한 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군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방향과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타 시·도 우수사례 발표(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지난 3월 15일은 사전경관협의제 운영,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 등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도·시·군 경관·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도 업무계획 설명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전경관협의제도 운영,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등 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경관·옥외광고물 연찬회

우리도는 앞으로도 도내 선진 경관·디자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좋은 경관과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주력

전라남도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전경관협의제도와 도민경관제 안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과 사업시행자가 경관을 협의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자는 제도이다.

사전경관협의 대상은 전원마을 등 농산어촌 경관 개선사업, 행복마을 조성사업,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해양항만사업, 읍면지역에서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된 전라남도 경관 조례는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전경관협의 심의·자문 등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전라남도는 또 도내 우수경관 보존과 경관 훼손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경관제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안제도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 보존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경관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이다.

옥외광고물, 대대적인 정비

전라남도는 옥외광고물 법·제도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 간판개선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라남도 간판디자인 학교,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개최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지원사업과 간판개선 시범사업,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도시 가로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공공청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 자율 감시단을 운영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간판개선사업비 1억 7천 만원을 지원받았다.



▲순천시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

물로 변했던 목포시 삼학도, 섬 모습 되찾아 10년 복원공사 막바지

목포시가 2004년부터 복원 공사에 들어가 박차를 가한 끝에 이제 상당 부분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복원공사로 대·중·소 삼학도 주변에 호안 호수를 설치하고 호안 양안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시공한 결과 섬에서 물으로 바뀐 삼학도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매립한 부분을 모두 걷어내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섬 모양만이라도 찾아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목포의 애환이 배어 있는 삼학도가 목포의 상징을 넘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다.



▲ 목포시 삼학도 복원사업

여수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여수시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의 손으로 수립하였다.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직원들의 손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은 직원들의 노고와 도시를 가꾸는데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수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다. 여수시가 방문하고 싶어진다.



▲ 여수를 대표하는 박람회장 일원

화순 성안마을, 공공디자인 벤치마킹지로 각광



▲ 성안마을을 찾는 이들이 또 얼마는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별려는지.....

화순 성안마을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났다.

곳곳에 주민들의 얘기가 담기고, 서로를 나타내는 시와 그림이, 그리고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손자들의 희망과 삶의 얘기들이 만들어 진다. 살기 좋은 곳은 어디든지 소문이 나나보다. 공공디자인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들도 교육과정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니. 왠지 궁금하지 않은가.

거금대교와 목포대교, 2012년 최우수 해상교량 선정



▲ 목포시 목포대교



▲ 고흥군 거금대교

전남지역에 건설된 거금대교와 목포대교가 지난해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물로 인정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자명)은 대한토목학회가 토목구조물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거금대교가 대상을, 목포대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금대교는 사장교로 남해안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유물의 산실인 소록도, 나로도 우주발사기지 등과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목포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면배치 케이블 공법을 적용해 해상교량 기술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 외곽지역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야경 등으로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서울시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10여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40곳을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형성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이야기 1,2권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마을활동가 취재단은 주거, 마을경제, 환경 등을 주제로 구별하여 동네별로 소개하고 커뮤니티나 마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여 책자에 담았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은 서울시 경관가꾸기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만들어진 마을공동체로 버려진 공터를 정비해 운영하기 등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려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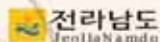
이밖에도 마포구 주민들의 커뮤니티인 ‘우리동네 나무그늘’ 주민센터 옥상과 대림 어린이 공원인 ‘조롱박 수세미 마을’ 등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작지만 재미있게 시작해 성장한 서울시내 우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라북도,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확대

전라북도는 올해 품격있는 경관만들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라북도의 자체 시범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해 가로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벌인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에 완주고산 신택지리 고산만들기사업이 선정되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국가지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327억 원을 투입, 익산의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 14곳의 경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3회 사이버공간을 연계한 전라남도 축제 홍보용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참가자격] 디자인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능

[공모일정] 1차 접수: 2013. 5. 13. ~ 6. 27.
2차 접수: 2013. 7. 8. ~ 7. 22.

[공모분야] 전라남도 축제 홍보용 포스터 디자인
 - 전남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1개 축제를 선정하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출품
 - 포스터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및 디자인 과정을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 홍보하고 그 자료를 포스터와 같이 출품
 - 디자인 방향
 - 축제 주제의 의미정당성 명확히 할 것
 - 형의성과 음계, 지역의 고유특성을 반영할 것
 - 축제 홍보용 포스터로서의 가시성과 미적수준을 갖추 것
 - 현지 방문 등 자료수집, 디자인 과정을 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공간에 홍보

[작품시상]
 - 대상: 1점, 상금, 상급 500만원
 - 금상: 2점, 상금, 상급 150만원
 - 은상: 2점, 상금, 상급 80만원
 - 동상: 4점, 상금, 상급 30만원
 - 입선: 12점, 상금, 상급 10만원

[작품접수]

1. 1차 인터넷 접수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http://jeonnam.go.kr>)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서식1), 작품설명서(서식2), 대외협력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자료수집 등 디자인 과정 사이버공간 홍보자료
 - 공모신청서: 온라인상에서 작성(별대표 1명 작성)
 - 작품설명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한글문서로 작성(A4 1장 이내)
 - 데이터파일
 - A3 Size(420*297mm) 1개, 가로방향 구성, JPG파일(200dpi)
 - 용량: 1M(파일 1개일) 이내
 - 자료수집 등 디자인 과정 사이버공간 홍보자료
 - A3 Size(420*297mm) 1개, 화면구성 임의, JPG파일(150dpi)
 - 용량: 1M(파일 1개일) 이내

2. 2차 패널 접수
 - 접수 대상: 1차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서식1), 작품설명서(서식2), 저작권 활용 동의서, 제2, 대외협력팀 CD
 - 공모신청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 한글문서로 작성(별대표 및 팀원 모두 작성)
 - 작품설명서: 한글문서로 작성(A4 1장 이내)
 - 패 널: 완성된 작품, 사이버공간 홍보자료
 - A1 Size(841*594mm) 가로방향 구성
 - ST폼보드 부착 2매(작품의 개요, 가시적인 평면 표현을 들)
 - 데이터 CD: 1장(7016*9933픽셀, 해상도 300dpi이상)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주요업무 및 업무담당

직 책	성 명	주 요 업 무	연 락 처
공공디자인과장	박 수 옥	공공디자인과 업무 총괄	061-286-5310 5311

경관관리팀

경관관리담당	김 종 갑	경관관리 · 옥외광고물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전반	061-286-5320
주 무 관	장 경 석	·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운영 및 관리 · 경관위원회 심의 · 자문 운영 및 관리 ·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061-286-5321
주 무 관	곽 부 영	· 옥외광고물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수립 · 운영 ·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 간판디자인학교 및 옥외광고대전 운영	061-286-5322
주 무 관	박 장 철	· 간판개선사업(공모, 자체) 추진 · 옥외광고물 시군관리 및 행정평가 업무 · 옥외광고물 실명제 및 전산화시스템 운영	061-286-5323
주 무 관	임 형 석	· 사전경관협의제 운영 및 관리 ·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 · 좋은경관만들기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061-286-5324
주 무 관	이 계 숙	· 좋은경관아이디어 나눔방 운영 및 관리 · 공공디자인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1-286-5325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 담당	김 상 규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전반	061-286-5330
주 무 관	김 진 현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 세계 친환경 상품디자인 박람회 추진	061-286-5331
주 무 관	윤 창 숙	·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관리 · 녹색 경관 · 디자인 접목사업 발굴 및 관리 · 녹색디자인 공모전 추진	061-286-5332
주 무 관	박 지 연	· 소규모 사업 디자인 자문 · 협의(현장 · 서면) · 도 상징물 관리 및 운영 · 우수포장디자인 상품전시회 개최 추진	061-286-5333
주 무 관	박 유 나	· 녹색디자인 인증제 추진 ·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개발 추진 · 공공디자인 정보지 발간	061-286-5334

발행일 2013. 5. 8.

발행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전화 061-286-5334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기획/디자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인쇄 동성기획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QR코드